

道 외국인 증가율 전국 1위... “이민청” 설립 최적지

전남도, 유치 전략 수립 연구용역

외국인 5만7천명... 5년새 51% ↑
여수·무안 등 5개 출입국관서 갖춰
인천 동포청·사천 우주청 ‘삼각축’
“비수도권 유치, 중앙·지방 협업”

정부가 이민청 설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남지역이 외국인 유입과 교통 편의성, 수요 및 정책 인프라, 업무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이민청’ 설립 최적지라는 용역 결과가 나왔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출입국·이민관리청 전남 유치 전략 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용역 수행기관인 동국대 산학협력단과 도 관계자, 전남연구원 관계자 등 총 10명이 참석해 용역 결과를 듣고 △해의 이민정책 및 전남지구 사례 검토 △효과적인 이민청 설립 모델 △입지 기준 △경제 효과 △유치 전략 등을 논의했다.

연구용역에 따르면 전남 이민청 설립을 위한 입지의 당위성을 살펴봤을 때, 지방 소멸 대응 및 경제 인구 확충이라는 설립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에 이민청을 유치, 중앙과 지방이 협업하는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비수도권 설치에 따른 정부와의 거리감 극복을 위해서는 이민청을 법무부 산하 중심으로 총괄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노동정책이나 주택정책 등

세부 업무 추진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또는 총리 소속의 조정 기구를 설치해 조율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됐다. 교통 편의성과 관련해서는 서남권 관문 공항인 무안국제공항과 목포, 광양, 여수, 완도 등 무역항 4개소가 자리 잡고 있으며, 전국 29개 연안항 중 11개소가 포함된 만큼 전남지역이 외국인 유입에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인프라 측면에서도 전남은 여수와 무안 공항, 목포, 광양을 비롯 인접지역인 광주

등에 5개의 출입국관서를 갖추고 있어 원활한 출입국 심사가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혔다. 특히 전남의 최근 5년간 외국인 증가율은 51%로 전국 1위를 기록해 이민청 유치 시 수요가 높을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전남도의 등록 외국인은 지난 2019년 3만8057명에서 올해 6월 기준 5만 7547명으로 급증했으며, 체류자격 중 외국인 근로자 비율도 60%로 전국 1위다.

2면에 계속

오지현 기자 jhyun.oh@jnilbo.com

대한민국 ‘金·金·金·金·金’ 목표 조기 달성

펜싱부터 양궁, 사격에서 금맥 30일 오전까지 金 5·銀 3·銅 1

태극전사들이 2024 파리 올림픽 개막 사흘 만에 목표로 했던 금메달 5개를 달성했다. 펜싱을 시작으로 양궁과 사격에서 잇따라 금맥을 캐면서 금메달 13개를 수확했던 2012 런던 올림픽 이후 12년 만의 두 자릿수 금메달을 노리고 있다.

한국 선수단은 펜싱의 오상욱(대전광역시청)을 필두로 금메달 사냥을 시작했다. 오상욱은 지난 28일(한국 시간) 오전 프랑스 파리 그랑 팔레에서 열린 이번 대회 펜싱 사브르 남자 개인전 결승에서 파레스 페르자니(Fares Ferjani·튀니지)를 15-11로 꺾고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섰다. 오상욱은 한국 펜싱 역사를 새로 썼다. 사브르 남자 개인전에서 처음으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됐고 2019년 세계선수권과 아시아선수권, 2023년 아시안게임에 이어 올림픽까지 4대 대회를 모두 석권하며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첫 주인공이 됐다. 이어 사격의 오예진(IBK기업은행)이 금빛 총성을 울렸다. 오예진은 지난 28일 오후 프랑스 파리 샤토루 CNTS 사격장에

서 열린 이번 대회 사격 10m 공기권총 여자 개인전 결승에서 243.2점으로 올림픽 신기록을 경신하면서 정상에 등극했다. 오예진은 241.3점으로 은메달을 차지한 김예지(임실군청)와 나란히 순위표에 이름을 올리면서 2012 런던 올림픽 사격 50m 권총 남자 개인전 금메달과 은메달을 수확했던 진중오와 최영래에 이어 12년 만에 함께 시상대에 서게 됐다. 양궁에서는 전훈영(인천광역시청)과 임시현(한국체대), 남수현(순천시청)이 단체전 금메달을 합작했다. 전훈영과 임시현, 남수현은 지난 29일 오전 프랑스 파리 앙발리드에서 열린 이번 대회 양궁 여자 단체전 결승에서 중국을 5-4(56-53, 55-54, 51-54, 53-55, 29-27)로 물리쳤다. 이로써 한국 양궁 여자 국가대표팀은 올림픽 단체전 10연패의 위업을 이뤘다. 1988 서울 올림픽부터 2024 파리 올림픽까지 단 한차례도 금메달을 놓치지 않으며 세계 최강의 실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반효진(대구체고)은 사격에서 두번째 금빛 총성을 울렸다. 반효진은 지난 29일 오후 프랑스 파리 샤토루 CNTS 사격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 사격 10m 공기소총 여자 개인전 결승에서 251.8점으로 황위팅(Huang



시원한 푸른길공원 광주지역에 열대야 현상이 11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30일 산책 나온 시민들이 시원한 물줄기를 뿜는 동구 푸른길공원 바닥 분수를 보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광주·전남의 열대야 일수가 11.7일로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관련기사 5면 나건호 기자

Yuting·중국)과 동점을 이룬 뒤 5호프에서 10.4점으로 금메달을 확정 지었다. 반효진은 예선에서 634.5점으로 올림픽 신기록을 경신한데 이어 결승에서도 251.8점으로 황위팅과 함께 공동 올림픽 신기록의 주인공이 됐다. 특히 16세 10개월 18일의 나이로 금메달을 차지하면서 한

국 역사상 최연소 하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에도 등극했다. 또 양궁에서 김제덕(예천군청)과 김우진(정주시청), 이우석(코오롱엑스텐보이즈)이 남자 단체전 정상에 올랐다. 김제덕과 김우진, 이우석은 30일 오전 프랑스 파리 앙발리드에서 열린 이번 대회 양궁 남

자 단체전 결승에서 프랑스를 5-1(57-57, 59-58, 59-56)로 완파했다. 여자 대표팀에 이어 남자 대표팀도 양궁 단체전 제패에 성공하면서 한국은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과 2020 도쿄 올림픽에 이어 남·여 동반 3연패를 차지하는 대기록을 썼다.▶관련기사 14면 한규빈 기자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

놓쳐서는 안될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 전북, 충북, 강원도에도 여러 개 있는 의과대학이 전남에만 없습니다.

은 도민이 힘을 모아 노력한 결과, 마침내 정부가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 ◆ 대통령 ‘민생토론회’(24년 3월)
‘전남도가 어느 대학에 의대를 설립할지 의견 수렴해 알려주면 추진’
- ◆ 국무총리 ‘정부합동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24년 3월)
‘의대가 없는 전남의 경우, 의견 수렴해 신청하면 정부가 신속 추진’
-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국회 상임위원회’(24년 6월)
‘교육부는 전남도 공모 결과를 존중해 협의 진행’
- ◆ 보건복지부장관 ‘국회 상임위원회’(24년 7월)
‘전남도가 빨리 의견을 수렴해서 대안을 제시하면 전남 국립의대 신설 신속 검토’

전남도가 정부 요청대로 대학을 추천해야 정부가 국립의대 신설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대학 추천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전남도는 엄격한 절차와 합리적 기준에 따라 ‘공모 방식에 의한 정부 추천대학 선정’ 용역을 공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국립의대 설립! 양 대학이 참여하고 은 도민이 합심해 뜻을 관철해야 합니다.

전남도는 추천되지 않은 지역과 대학에 대해서도 추천된 지역에 버금가는 의료혜택과 지원책을 마련하여 어느 지역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주십시오!

